

화학3사, 2004년 기업분할 추진

국내기업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... 사업고도화·경영효율화 추구

국내기업들의 합병과 분할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2004년 현재 LG와 한국합섬, 동아타이어 등 화학기업 3사가 회사분할을 추진중이다.

증권거래소에 따르면, 국제통화기금(IMF)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 11월21일 이후 2004년 5월29일까지 이루어진 국내기업의 합병 및 분할은 총 233건에 444조8877억원으로 집계됐다.

유형별로는 합병이 177건에 389조2331억원, 분할이 56건에 55조654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.

합병·분할 건수는 1999년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2001년의 190조551억원이 최대였다.

기업분할 현황(2004)

구 분	공시일자	분할로 신설될 기업	금액(억원)	분할 이유
L G	2004.05.27	GS홀딩스	21,800	사업의 고도화, 주주가치 극대화 등
한국합섬	2004.05.14	한스론	3,226	경영의 효율화, 사업의 고도화 등
한익스프레스	2004.03.22	경일중공업(가칭)	89	경영의 전문화와 책임경영 등
동아타이어	2004.02.04	DTR(가칭)	42	관리의 효율화 등

† 공시일 기준

그러나 합병·분할 실적은 2003년에 28건에 19조7571억원으로 떨어진 뒤 2004년 들어 현재까지는 합병 7건에 1조5137억원, 분할 4건에 2조5157억원 등 모두 11건에 4조294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.

증권거래소는 “2002년까지는 사업조직 정비와 경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업분할이 활발히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3년 말 이후에는 합병이 늘어나는 추세로, 국내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합병 및 분할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”고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01>